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 두달만에 400만 돌파

사그라들지 않는 흥행에는 ‘탄탄한 콘텐츠’ 한몫
 여름철 ‘가든 캠프’ 준비, 새로운 휴가 문화 기대
 6월부터 8월까지 개장시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58일 만인 28일 정오에 관람객 400만 명을 돌파하면서 800만 목표 관람객 수의 50%를 달성했다.

176일 만에 400만 명을 넘어섰던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비교해 3배가량 빠른 속도다.

29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는 차별성과 완성도를 갖춘 정원, 특히 2023정원박람회 ‘Big change 10’이라고 불리는 콘텐츠들은 단연 이번 박람회의 흥행 주역으로 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오전그린광장’은 YB밴드 콘서트, 최현우 마술쇼 등 각종 문화 공연이 치러지는 문화공간이자, 시민들이 일상 속 쉼을 누릴 수 있는 삶 속 정원으로 자리해 국내 새로운 관광 문화를 대동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린아일랜드’, ‘가든 스테이-실라게’, ‘정원드림호’, ‘물 위의 정원’은 국내 최초 순천이 처음으로 시도해 만들어 보인 정원이다.

기존 정원박람회장 외 도시 전역을 정원으로 삼아 새롭게 창조한 콘텐츠는 개장 후 400만 관람객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했다는 평가다.

또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으로 관람객들이 집중되는 주말에도 교통대란 없이 쾌적한 관람을 가능케 했다는 점도 흥행 요인 중 하나다.

박람회 성공을 염원하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 차량 2부제 참여도를 높였으며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자원봉사자 등 현장에서 교통지휘, 주차 안내 등 노력도 원활한 차량흐름을

이끌고 있다.

400만 명이 입장한 두 달 동안 박람회 자체 매출 현황은 27일 기준 235억 원을 넘어섰다. 입장권 판매액이 158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식당과 카페, 편의점 등 식음 시설은 48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관람차, 스카이크루, 정원드림호, 가든 스테이 운영을 통해서도 29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 박람회장 주변 상인들은 박람회가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박람회 효과를 바로 체감할 만큼 손님이 많이 늘었다”, “재료가 일찍이 소진돼 마감을 빨리하는 경우도 발생할 정도”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경제 효과 분석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높은 상태다.

이와 같은 박람회 흥행 돌풍에 이어 전국의 지자체, 기관·단체, 연구소, 의회 등 170여 곳이 벤치마킹을 다녀갔다.

조직원들은 다가올 여름 시즌을 맞이해 ‘여름 정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금까지 우리는 대체로 여름휴가를 계획이나 바다만 생각을 해왔



다. 사실 가장 고급 휴양지는 정원이다. 지금껏 없었던 휴가지로서의 훌륭한 정원을 보여드리겠다”면서 “올여름, 주저하지 마시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오시라. ‘가든캠프’에서 즐기는 고품격 휴가를 선물해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여름철 휴가지로 정원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조직위는 여름에 즐기는 한겨울 ‘빙하 정원’, ‘정원에서 즐기는 물놀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에 옛 추억을 소환하는 ‘개울길 광장’, 강을 가로지르며 정원을 만끽하는 ‘정원드림호’, 정원 곳곳에 펼쳐진 분수와 개울로 시원한 정원을 선사할 예정이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동안 개장 시간을 한 시간 늘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순천=김승호기자

확진 학생 5일 결석 권고, 출석은 인정...자가진단 앱 종료

교육부, 코로나19 학교방역지침 개정
 시험 분리 고사실·인정점 제도 등 지속

내달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7일 격리의무가 ‘5일 결석 권고’로 바뀐다. 해당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모든 학생이 등교 전에 증상을 입력했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은 3년여 만에 사라진다.

교육부는 내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유·초·중등(중·고)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제10판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역 당국이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에서 ‘경계’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낮춘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결석을 적극 권고

하고 출석을 인정하도록 정했다.

다만, 고교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 기간에는 확진자도 등교해 교내에 마련된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진 학생이 불가피하게 등교해야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동선을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 기존 방침과 같이 시도교육청, 학교별 규정에 따라 인정점수를 부여한다. 인정점은 학생이 기존에 취득한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정한다.

2020년 9월부터 운영된 학교 자가진단 앱은 내달 1일부터 활용을 중단한다.

그간 앱을 통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등 3가지에 해당한다고 답변하며 결석할 수 있었다.

앱에서 집계하던 학생 확진자 현황은 교육 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을 통해 관리하고, 교직원 현황 파악은 중단한다.

앞으로 등교 전에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학생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사를 받고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을 학교에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업 도중 증상이 발생할 경우 학생들에게 KF94 등 보건용 마스크를 씌우고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유증상자 대기 보호를 위한 별도 공간인 ‘일시적 관찰실’도 당분간 유지한다.

지침상의 소독(1일 1회 이상), 환기(1일 3회 이상) 등 기존 주요 방역 조치는 ‘확진자 급증 등 상황을 감안해 소독, 환기를 실시한다’로 일부 완화됐다.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제 9-11판	제 10판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격리 기간(7일 의무) 준수 등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중요 통지 권고
자가진단 앱 운영	유증상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권고 ※ 확진 정보 입력은 유지	사용 폐지
방역 활동	감염예방에 중대한 장 확보	학교별 적정 수용 벽역(기 체온 측정기를 유지)은 유지
소독환기	빈번 접촉 장소 1일 1회 이상 소독 교실 등 방문 1일 3회 이상 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염예방 소독환기

마스크는 종전처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이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침(비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착용을 권고했다.

이처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당분간 유지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용일기자

광주시교육청 장기결석 학생 195명 소재·안전 확인됐다

광주지역 장기결석 학생 195명의 소재가 전원 파악됐다.

광주시교육청은 2023학년도 제1차 아동학대 징후 조기발견을 위한 장기미인정결석학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대상학생 195명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12일까지 교육청·지자체·경찰청과 합동으로 7일 이상 미인정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을 벌였다.

전수조사 결과 초등학생 124명, 중학생 71명이 장기결석 학생으로 파악됐으며 각 학교별로 연락을 실시했다. 연락이 닿은 학생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도록 했으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정 방문 등의 방법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가정형편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견돼 교육·학습, 심리·정서, 생활용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슬비기자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자연의 맛
 GURYE

매실

산수유

오이